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성열



우리 사회의 안팎에서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변화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세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경남 창원에서 지난 4월 열린 교육도시 세계연합 총회는 40여개 국에서 3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참석해 지방의 세계화를 체계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행사였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스키야와 와글을 즐겨 먹고, 잉글랜드에서 뛰는 박지성 선수나 이청용 선수에게 열광하며, 외국인 과 스스럼없이 소통한다. 외국의 젊은이들도 우리 음식인 비빔밥에 반하고, K-팝 등 한류에 열광한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프리드만이 지적하였듯이, 경제적 차원에서 지구는 이미 평평해졌으며, 자본의 흐름 앞에 국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나 국경을 모르는 또 다른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빈곤, 불평등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위기 요소들이다. 빈곤이나 불평등은 자국 내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환경 위기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환경 등에서 바야흐로 우리 시대의 거대한 흐름인 세계화는 가장 중요한 변화인 동시에 기회와 위기를 함께 만들어내는 양면적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복잡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시대 핵심 덕목 '글로벌 소양'

세계화를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소양(global literacy) 일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한편, 세계 여러 나라와 더불어 글로벌 위기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인류의 지속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보다도 외국어 의사 소통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개방과 교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외국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모국어만 하고서는 세계화 시대

를 살아갈 수 없다. 유창한 영어 소통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하여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교육도시 세계연합 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이 대부분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었는데, 이렇게 아직 영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지역(예컨대 남미 등)을 무대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습득하는 일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자국 문화에 대한 주제성 형성과 더불어, 문화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과 더

이해와 수용의 유연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다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맹목적 우월감이나 비하도, 타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숭배나 경시도 없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한국인에게, 열린 마음을 가진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는 배타적 소양, 즉 나눔과 배려의 미덕이 요구된다. 열린 마음에 기반한 배타적 소양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핵, 인권, 환경, 이민, 빈곤 문제와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당연히 요구된다. 그것은 성숙된 국민과 국가가 스스로의 관심 영역을 세계의 문제, 인류의 문제로 의연히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세계화 시대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양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기회, 즉 국가 경쟁력은 글로벌 소양을 갖춘 인적 자원에 의해 가능하지만, 세계화 시대의 위기의 해결은 남보다 앞서 가서 선점하겠다는 경쟁적인 마음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겠다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선포 나누는 태도에서 가능하리라. 우리 젊은이들을 글로벌 소양을 가진 젊은이로 기르는 교육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경남대 교수·부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5·18 기념사업 법적 지원 체계 시급하다

5·18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가 지극히 미흡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 사업계획 수립과 기념사업 관련 보안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5·18 기념사업에 관해 언급된 법률은 '민주유공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세가지다. 하지만, 이들 법률 모두 선입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기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념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민주유공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기념사업 추진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단 두 줄로 명시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역시 제5조에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만 적시하고 있다. 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1995년에 작성한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을 그대로 담고 있을 뿐이다.

3개 법률 모두 시행령 등 하부 세칙에는 기념사업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5·18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국군통합병원·광주교도소터 개발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세력이 엄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오월정신과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법률 보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5·18은 광주·전남만의 기념일이 아닌 국가 기념일이다. 정부는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거국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광주시도 법률안 마련에 적극 나서 5·18 정신이 전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증가하는 미혼모, 보호시설·지원 확대해야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만만치 않고 복지정책도 극히 취약하다. 청소년 탈선과 혼전 임신의 증가로 보호가 필요한 미혼모는 계속 늘고 있으나 사회적 무관심과 법적·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미혼모 시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도 매년 500여 명의 미혼모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연령대가 낮아져 10대 미혼모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성년자의 경우 낙태가 벌어로 금지돼 있는데다 설명 낙태를 하러 해도 병원을 찾기 어렵고, 고가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미혼모를 보호할 시설도 취약하기 짝이 없고 까다로운 입소 절차,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광주 지역 미혼모시설에는 총 243명이 입소

했으나 4월 말 현재 51명만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이 미혼 보호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학교를 다니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이 필요하지만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학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10대 미혼모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적극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호해야 지 더 이상 적당히 낚길 일은 아니다. 청소년의 입신을 왜곡된 성문화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폭행 등 불가피한 임신일 경우 입소의 조건 완화, 지원금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 남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퇴폐적인 성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이상혁

2014년 말이면 서울과 광주송정역간의 KTX가 개통된다. 현재 2시간 52분 정도 소요되던 시간이 1시간 11분으로 짧아진다. KTX 완전개통은 광주전남의 미래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의료산업과 유통은 위기가 될 가능성이 커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유통은 경제적인 측면이 크지만 의료는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복지, 지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의료의 판매효과가 일어나다면 현재의 대형병원 2차 병원의 역할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의료수요가 서울로 빠져나간다면

의료산업의 역외 유출 막아야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력이 서울 등으로 유출될 것이다. 이 경우 한번 비정상화면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어렵고 지역민들이 전문적인 3차 진료를 보기 위해서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개통이 되지 않은 현재 상황도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KTX 영향권 주요도시의 의료비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수도권 입원 및 외래환자 이용률이 각각 13.2%, 19.7%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KTX 완전개통이 되면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암 환자 치료다. 현재 광주·전남 암환자는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오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부산의 KTX 개통 이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 만족도는 수도권의 대형 병원

이 높았지만 접근성에서는 지역이 월등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수도권 접근성이 높다면 그만큼 환자의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문제는 광주·전남 암환자 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화순 전남대 병원이 광주·전남 서부지역주민들에게는 접근성이 현재도 많이 떨어져 뿐만 아니라, KTX 완전개통 후에는 오히려 접근성에서 서울의 메이저 병원들에도 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접근성과 시설에서 뒤지지 않는 추가적인 1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확충이 필요하다.

의원급에서는 성형외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KTX 개통 뒤 대구 등지에서는 많은 환자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지역 의사들이 병원을 폐업하고, 서울의 월급의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KTX 개통이 광주지역 의료산업과 인프라에 꼭 위기만은 아니다. 오히려 역

빨대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다. 의료산업은 좋은 의료 인력과 시설이 있다면 꼭 수도권에 있지 않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 최고로 꼽는 쉘스 힐프스 병원은 인구 65만의 볼티모어에 있고, 보스톤의 메사추세츠 병원과 미네소타의 메이요 클리닉도 미국의 대도시에 있지 않다.

암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와 함께 요양이 필수적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에서 편안한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연결이 가능하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형외과 시장에 있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 KTX 개통은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연결되므로 이를 이용해 외국 환자 유치에 훨씬 편해질 수 있다. 또한 서울에서 환자가 내려와서 수술을 받고 올라가기도 편하다.

의료산업은 우수한 의료인력과 장비 그리고 시설이 어울려야 한다. 이제 의료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서울의 우수한 인력을 광주로 불러들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또한 장비와 시설의 확충이 광주지역 의료 시장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SM성형외과 원장〉

기고



임영을

창조적 문화 전도사 이이영 교수는 가장 우리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하였다. 가장 우리다운 것 중의 하나로 비빔밥(傳飯)을 거론하였는데,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도 아껴주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문화-이런 문화를 비빔밥 문화라고 소개한 바 있다.

비빔밥 문화는 디지로그(digilog) 시대, 다문화·다민족 시대를 창조적으로 열어갈 가장 바람직한 코드가 아닌가 싶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 능률과 온정의 조화, 남과 나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비빔밥 문화는 동양철학의 오랜 전통의 문화를 계승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비빔밥과 같이 화합하고 융합해야 시너지가 배가 되는 분야가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의 갈망

바로 북한이탈주민과 우리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아닌가 싶다. 어느 집단이든 비공식 조직인 지연, 학연, 혈연 그룹들의 파워가 지배하면 그 끝은 패가망신이다. 개리개리가 만들어가는 패거리 문화는 배타성과 몰연치가 특징이다. 차이를 차별과 억압으로 재생산하는 패거리에 속한 구성원에게는 자기 것만 좋은 것이고 자기 이익만 쟁길 수 있다면 만사 오케이라는 공식이 통용된다. 길게 보면 그러한 자기 식구 행기기는 그 집단의 소멸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대한민국에 비빔밥 문화가 활짝 꽃 피우기 위해선 함께 섞여 어울려야 할 이웃이 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이다.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많지만, 요즘에는 주로 탈북자, 새터민(民), 북한이탈주민으로 불린다. 새터민은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미래지향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통일부에서 공모에 의해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독재체제를 거부하고 자

유를 찾아온 이들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단 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명칭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 광주에는 1998년 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정착한 이래, 600여 명이 우리 주민의 학교, 일터, 동네에서 이웃으로 살고 있고 전국에는 2만5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시민과 잘 섞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같은 민족이지만 말투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살아온 사회적 체제와 문화가 달라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들을 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북한이탈주민이 연루된 범죄 소식은 이들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도매금으로 넘기기도 한다. 이

들은 고집이 세고 게으르며 공짜를 좋아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가 알기에 이들은 이들의 절대다수가 열심히 살고 있다.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위해 부지런히 배우고 탐구하고 있다. 다만, 갑자기 변한 새로운 환경, 지독한 경쟁사회에서 마음먹은 만큼 빨리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을 뿐이다.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민과 관이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통일의 실마리도 보일 것이다.

비빔밥은 포용의 상징으로, 여러 가지 독특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한 차원 다른 맛과 영양을 제공한다. 광주를 찾아 온 북한이탈주민은 더 많은 민주, 더 많은 인권, 더 많은 평화를 갈망하며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밟은 사람들이다.

일찍이 광주학생독립운동, 5·18 민주항쟁으로 민족의 역사를 개척했던 광주시민들은 이들을 가장 잘 포용하여 통일의 디딤돌을 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가장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에서 북한이탈주민도 한 몫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광주시 자치행정과장〉

떡산업 활성화 위해 조리·가공공정 표준화 시급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생일날 '케이크 자를까? 시루떡 자를까?'하고 묻는다면 안타깝게도 케이크 자를까?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입맛이 서구화되고 밀가루 위주의 음식이 많이 들어 빵에 밀렸기 때문이다.

떡은 쌀과 감자와 말려들고 더불어 우리 민족의 전통성과 토착성이 가미된 특

한 우리의 음식 문화이다. 우리의 귀중한 음식문화인 떡이 이제는 더 이상 밀가루에 밀리지 않게 해야 한다.

우선 모든 음식 조리에는 기본 레시피가 있듯이 전통 떡도 조리기술과 표준 제조법을 명확히 하고 쌀 가공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즉 떡 원료의 조리와 가공공정의 표준화 및 품질관

리에 도움을 써야 한다. 특히 저장, 유통 문제의 원인인 전분 등의 노화를 방지하는 기술개발이 추진돼야 한다.

현대화된 식습관 패턴에선 소비대상별로 맞춤형 포장재 개발이 필요하고 포장 용기 형태나 크기도 다양화해야 한다. 이는 현재 고급스럽게 체인점으로 퍼져있는 제과점과 일반 제과점을 참고삼아 봐도 좋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쌀가루로 떡이나 제과, 제빵류를 제조할 수 있는 기능인 양성도 필요하다. 위축된 떡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떡 품목 다양화, 다양한 디자인, 위생적인 시설

개선과 공정 표준화, 전문적인 떡 가공 기술자 양성 등을 들었다. 그리고 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한과 학과, 한과 요리학과 등을 뒤야 한다.

아울러 각도가 수출할 수 있도록 그 나라 국민이 즐겨 찾는 향신료가 들어간 떡을 개발해서 수출을 꾀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향신료를 많이 쓰는 인도나 중국,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해 이런 떡을 개발하고 유럽인들 입맛에 맞게 개발해서 보급해 보면 어떨까.

▲이대운·광주시 남구 칠석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